

국토부 “기존 제주공항 확장 안전상 무리”

김해신공항과 활주로 형식·여건 달라 부정적 입장 도 “제2공항 무산된다면 새로운 인프라 확충 필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 기존 제주국제공항 확충은 안전상 무리가 있고, 제주도 역시 현재 성상을 일대에 조성 계획인 제2공항 건설사업이 무산된다면 완전히 새롭게 공항인프라 확충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도는 25일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존 제주공항 확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공항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혼잡할 만큼 포화된 상태로 무리한 확장 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특히 제주공항은 김해신공항과 활주로 형식과 여건이 완전히 달라 더 이상 용량증대 등 확장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도민사회 일각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대안으로 제시했던 제주공항 확장에 대해 국토부는 최종

적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무산된다면 완전히 새롭게 공항인프라 확충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방안으로 도의회의 입장과는 달리 도는 여전히 설문문항에 제2공항 찬반반을 다루고 성산주민에 대해서는 가치를를 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현 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의 원회록 제주지사와의 면담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면담이 실질적인 협의가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고, 특위를 만나 조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2공항 추진여부는 도민여론으로 결정한다”며 “정부 입장에 따르면 현 공항 확장은 의미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제주공항 확대 반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 단장은 “제주공항을 만약에 확장하더라도 새로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선택하기 어렵다”며 신규 공항인프라 확충 절차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백금탁기자

삼다수 소비자 '편의성 중시' 구매 이유는 '1위 품질 신뢰'

제주삼다수를 마시는 소비자들이 건강보다는 '편의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식 SNS채널을 통해 생수 음용 패턴에 대한 설문에 참여한 900여명 가운데 65%는 '편리함' 때문에 생수를 마신다고 답했다.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17%로 뒤를 이어 소비자들은 건강보다 편의성을 더 우선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삼다수를 어디서 구매하는지는 질문에는 '온라인 몰' (48%), '편의점' (16%), '대형마트' (11%) 순으로 답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늘며 온라인과 편의점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삼다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 가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삼다수를 마실 수 있도록 가정배출전용 모바일 앱을 선보이며 유통 혁신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분기(6-9월) 기준, 삼다수 앱 가입자 수는 작년 동기 대비 91%, 주문량은 30% 이상 각각 증가했다. 제주매출 역시 75%로 높게 형성됐다.

삼다수 구매 이유에 대해서는 '뛰어난 품질에 대한 신뢰'라고 답한 비율이 71%로 가장 높았고 맛과 건강이 각각 12%, 9.6%로 뒤를 이었다. 품질 신뢰 배경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응답자가 '제주에 가진 자연의 청정성'을 꼽았다. 39%는 국내 1위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라고 응답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푸르른 제주바다 25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바다를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감귤 역대 전략농가 육성사업 본 궤도

2021 육성과정 참여 농가 모집 감귤명인 고품질 재배법 전수

감귤명인을 활용한 역대 전략농가 육성 사업이 본 궤도에 접어들고 있다. 서귀포시는 내달 4일까지 '2021 감귤명인을 이용한 역대 전략농가 육성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일반 농가들보다 생산량·당도가 뛰어나 평균조수입이 40%이상 높은 농업인 5명을 '서귀포시 감귤명인'으로 지정했다. 강성훈(한라봉), 한중섭(성목이식(유라조생)), 강만희(비가림 온주), 오명환(레드향), 김진성(성목이식(조생)) 씨 등이다.

감귤명인들은 올해 품목별로 월 1

회씩 교육을 진행하며 고당도 감귤을 생산하는 기술, 해거리를 예방하는 기술 등을 전수했다. 명인들이 직접 경험·연구한 실증적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및 문답교육을 통해 고품질·고당도 감귤 생산 기술을 전파했다.

서귀포시는 2021 육성과정에서도 감귤 품종별로 한라봉·레드향·비가림 온주·성목이식(일반조생)·성목이식(유라조생) 부문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명인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심화반을 신설·운영하며 감귤경예농가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감귤명인 교육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감귤종합정보시스템)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내달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현영준기자

귀덕1리 배수개선사업 준공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기대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돼 온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일대 농경지의 비 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 온 귀덕1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다음달 준공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까지 총 102억2300만원을 투입해 배수로 13조 4.8km를 시설했으며, 현재 98%의 공정률로 다음달 사업이 마무리되면 농경지 침수 우려가 해소돼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귀덕1지구를 포함해 올해 50ha 이상의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 6개 지구에서 국비 68억원을 투입해 배수개선사업을 추진중이다. 문미숙기자

2020 제주애 빠지다 ⑭ 제주시로컬푸드연구회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인 '올바른농부장'을 운영중인 제주시로컬푸드연구회 문화선 회장이 환이정 농부학교 앞에 섰다. 문미숙기자

“생산자도 소비자도 좋은 먹거리 문화를”

친환경농사 짓는 사람들 뭉쳐 ‘올바른농부장’서 직거래 운영

제주시로컬푸드연구회, 제주로 이주해 농사짓는 이들과 몇몇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1년여 전쯤 꾸린 단체다.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나잇대와 제주 이주 전 생활근거지도 달랐던 이들은 어떻게 뭉쳤을까? 지역에서 키운 농산물과 가공품을 중간 유통단계없이 직거래해 생산자도 소비자도 좋은 건강한 먹거리문화를 만들고, 운송·포장 등의 과정을 줄이면서 환경적 측면에도 도움이 되는 로컬푸드운동이라는 지향점이 같아 가능했다. 연구회는 현재 개인·사회적기업 등 30팀이 활동중인데 주로 친환경농사를 짓거나 1차 생산품을 가공하고, 사회적기업을 꾸리는 이들이다. 지난해 5월부터 직거래장터인 ‘올바른농부장’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뒤이어 연구회도 만들었다.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문화선 씨는 제주이주 열풍이 불기 한참 전에 가족 모두가 제주로 이주했다. 제주시 조천읍에서 감귤농사를 짓던 아버지가 6년 전 돌아가시면서 농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아버지가 짓던 관행농법에서 친환경으로 과감히 방향을 틀었다.

“제주대학교에서 1년 과정의 친환경농업대학을 수료했어요. 전경, 예초, 친환경 제제를 써서 생산한 감귤을 전국 소비자 700여명에게 택배로 판매해요. 지인으로부터 몇 명씩 소개받아 판매하던 데 건주면 놀라운 변화죠.”

연구회가 지난해 5월부터 매달 두 차례 아라동 옛 목석원 인근에서 진

행하던 올바른농부장에선 팀원들이 직접 키운 제철 과일과 채소를 판매했다. 올해는 매달 한 번은 제주시 노형동 소재 한살림 담을장에서, 한 번은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인문예술공간 환이정에서 직거래장을 운영 중이다. SNS와 블로그를 통해 장소 소식을 알리는데 소비층 역시 건강한 로컬푸드에 관심있는 이들이다.

환이정 공터에서는 올해 올바른농부학교도 열었다. 사진 신청을 받아 60명이 당근·콜라비·비트·양배추·브로콜리 씨를 뿌리고 김매고 벌레잡고, 친환경 약제를 뿌리며 가꾼 채소들이 한창 자라는 중이다. 내년 1월쯤 수확해 푸드클래스를 통해 나눠먹을 예정이다.

이들 연구회의 활동에는 제주시농업기술센터가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직거래활성화 시범사업과 교육지원을 받고 있고, 이달 초엔 전국 최초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선보이기 시작해 전국 최다 매장을 운영하며 로컬푸드 1번지로 불리는 완주군 로컬푸드 가공센터 등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녀는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 직매장이 잘 자리잡은 곳을 직접 보니 가공제품 생산기반이 취약한 소농이나 사회적기업에서 가공품 제조가 수월하게 공동 가공공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간절해졌다”고 했다.

제주시로컬푸드연구회의 바람은 앞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현재 생협 등에서 솜이속 형태로 선보이는 제품들을 단독매장에서 소비자들과 더 가깝게 만나며, 로컬푸드운동의 저변 확대에 힘을 보태는 일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핵심 물질
토양의 pH를 맞추주는 역할, 양분흡수를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 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리핀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완소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생장을 향상시켜줌.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키위농가에 희소식

21세기 최첨단 비료 → “이노페스” 탄생

희토류가 들어있는



이노페스 성분

원료명	효과
희토류	염류중화·토양개량·천연항균 작용
식이유황(MSM)	천연항균 작용
부식산	유기물 대체·토양개량
벤토나이트	토양개량
고삼·백합추출물	토양해중기피
아미노산	천연질소질 공급
미량요소(Mg, B, Mo, Cu, Fe, Mn, Zn)	필수 미량요소 공급

특징

- ☆가스피해가 없다
- ☆항균작용으로 토양이끼 억제
- ☆염류중화 작용으로 뿌리생육 발달로 역병예방
- ☆시비가 간편하며 시간과 인건비 절약
- ☆희토류 첨가로 작물의 기작 조절

사용방법

키위 = 1,000평 기준 20~25포(포당 15Kg)
※ 다른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처 (주)포트라 판매처 농협·김협
공급처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